童詩、굴뚝、

산골작이 오막사리 나즌굴뚝엔
몽긔몽긔 웨인내굴 대낮에솟나、

×

감자를 굽는게지. 총각애들이
깜박깜박 검은눈이 몽여앉어서、
입술이 꺼머케 숱을바르고、
넷 이야기 한커리에 감자하나식、

×

산골작이 오막사리 나즌굴뚝엔
살낭살낭 솟아나네 감자굼는내。

一九三六 가을、

굴뚝

산골짜기 오막살이 낮은 굴뚝엔
몽기몽기 웨인내굴 대낮에 솟나.

×

감자를 굽는 게지. 총각 애들이
깜박깜박 검은 눈이 모여 앉아서
입술이 꺼멓게 숯을 바르고
옛이야기 한 커리에 감자 하나씩

×

산골짜기 오막살이 낮은 굴뚝엔
살랑살랑 솟아나네 감자굽는 내.

1936. 가을